

추석 가정예배 순서

예배 인도자는 먼저 아래 사항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전 인도자는 대표기도자를 정해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배인도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게임기, 텔레비전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3. 하던 일을 모두 멈춘 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예배 인도자는 예배 전 미리 순서지를 읽어보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들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 4:24)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갈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명, 혹은 인도자가)

이 문서는 새성실교회(sheem.or.kr)에서 추석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작 된 순서지와 말씀입니다.
추석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포되었습니다.

성경봉독 (민수기 11장 31~34절)..... 인 도 자

31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
면에 퍼 두었더라

33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
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말씀선포 (설교문 참조) 인 도 자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교 문

(예배 인도자는 미리 한 번 읽어 숙지 후 사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일컬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세대라고 부르더니 다시 거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의 포기를 더해 5포세대라고 부르고 이제는 더 나아가 n포세대라고 합니다. n은 수학기호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를 의미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예민할 뿐 다른 것에는 관심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에 하나님을 포기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약 사십오 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동이 났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악한 말로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텐데, 당신들 때문에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원망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이번에는 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출애굽을 후회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에 지배당하고, 탐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에서는 특별히 메추라기와 관련된 일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기브룻 핫다아’ 즉 탐욕의 무덤이 하나님보다 탐욕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래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경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랜

불경기에 사람들은 점점 물질 최우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장래희망이 ‘돈 잘 버는 사람’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보다는 그 대가가 화려하고 풍성한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과연 어린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은 어른들의 대화에서 배운 것입니다. 부모가, 그리고 어른들이 대화 중에 나누는 말들이 이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돈 잘 버는 것, 잘 먹고 잘사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방법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풍성한 명절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수고를 결실하는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고 삶이 고단해도 차려진 식탁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절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식탁의 풍성함이 인생 최대의 목표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물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굶주림보다는 배부름이 감사합니다. 곤비함보다는 풍성함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기쁨만을 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서는 가난한 신학생 시절 사모님께 쓴 편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학비에 묶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 아버지,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않는 것들보다 앞서는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의와 진리를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의 기도 혹은 통성기도 후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

이 문서는 [세성실교회\(sheem.or.kr\)](http://sheem.or.kr)에서 주석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작된 순서지와 말씀입니다.
주석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포되었습니다.